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영향 요인

김영은^{1*}, 윤미선², 이현정³

¹백석대학교 기독교상담학전공 교수, ²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³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xplorations of Dating Violence Related Factors that Affect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Youngeun Kim^{1*}, Mi-Sun Yoon², Hyun-Jung Lee³

¹Professor, Division of Christian Counseling, Baekseok University

²Professor, Division of Nursing Science, Baekseok University

³Professor, 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최근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에 부합하여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을 포함한 다양한 영향 요인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와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그 상대적 설명력의 크기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충청권 소재 1개 대학교의 508명의 대학생이 자기보고식 질문지에 응답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사용하여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심리적 불편감 노출 및 상담에 대한 유용성기대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연인 간의 비합리적 폭력인식과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 대한 위험기대, 및 도움 요청 장애 요인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부적 관계로 나타났다. 위 변인들의 총 설명량은 46.1% 으로 상담에 대한 유용성기대가 가장 큰 설명력을 지니고 위험기대와 도움요청 장애요인이 그 다음으로 큰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연구 주제의 확장 및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 서비스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향성 제시를 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대학생, 데이트폭력인식, 심리적 불편감 노출, 지각된 사회적지지, 유용성기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relations between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perception and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and other factors that affect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 and their effect size. 508 students from a college in Chungcheong region responded to self-report questionnaires. Data were analyzed by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2.0 program. As a result, self-disclosure and anticipated utility on self-disclosure had positively effect on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In contrast, violence perception, perceived social support, risk on self-disclosure and barriers to seeking help had negative effect on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The total effect size was 46.1%, and the effect size of anticipated utility on self-disclosure was the largest, followed by risk on self-disclosure and barriers to seeking help. This study contributed to the broadening of dating violence research topics and provided the directions to the endeavour to increase the use of professional services amo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College student, Dating violence perception, Self-disclosure, Perceived social support, Utility on self-disclosure

*Corresponding Author : Youngeun Kim(youngeunk@bu.ac.kr)

Received September 6,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Revised October 2,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1] 우리 사회에서 데이트폭력은 양적 증가뿐 아니라 연간 100여건에 이르는 잔혹 범죄(살인 및 살인미수)로 이어지는 등 질적으로도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2].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대학생 집단에서도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 대상 연구들에서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 비율은 신체적 폭력의 경우 12.5%에서 63%, 정서적 폭력은 59.6%에서 93.4%, 성적 폭력의 경우 49.5%에서 50.8%로 조사되었다[3,4].

데이트폭력은 하나의 외상 사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울과 같은 정신적 문제와 대인관계 부적응과 같은 사회적 기능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대학생 시기는 발달 단계에 있어 이성 간 활동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이를 통한 이성과의 친밀감 획득의 발달 과정이 중요한 초기 성인기라고 볼 때, 데이트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고 볼 수 있어[6] 대학생 데이트폭력에 대한 구체적 연구와 분석이 더욱 크게 강조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에 비해, 대학생들은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도움 추구에 그다지 긍정적인 편이 아니다.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 사례와 이들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탐색한 국내 연구[7]에서 피해 사건을 경찰이나 가족과 같은 지지 자원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청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데이트폭력이 연인 사이의 단순한 사랑 싸움이 아닌 개입을 필요로 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적시에 제공되는 전문적 도움은 문제의 악화 방지 및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볼 때[8],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 도움 추구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탐색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상담 등과 같은 전문적 도움 추구 행동에 대해 개인이 갖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로 정의된다[9].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된 메타분석 연구 결과 부정적 태도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변수로 나타나[10] 도움 추구 태도는 도움 추구 주제 전반에 있어 중요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하는 단계에 속해 있으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심리적 독립 및 자율성 획득,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 등과 같은 다양한 발달 과업의 성취가 중요해지는 시기이므로 어느 때보다도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으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11].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2]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최근 3개월 간 '매우 자주' 혹은 '자주' 우울이나 무기력(25.83%), 불안(25.33%), 외로움(23.22%), 분노(20.12%), 자살 생각(4.31%), 자살 시도(3.36%) 등의 심리 상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의 13%~20% 정도는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보고되었다[13].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업 지속, 사회적 관계 실패 및 일상생활능력의 저하 등의 문제뿐 아니라 약물 남용, 자살 행동 등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2]. 특히 25세 이하의 발달 단계에서 정신, 심리적 문제들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만성정신질환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13], 이 시기에 경험하게 되는 심리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에 대한 태도와 필요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신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14].

그러나 심리적 어려움과 이로 인한 전문적 도움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담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은 많지 않다[13]. 대학생의 경우 교내 상담 기관이 갖는 긍정적 접근성(예: 전반적 상담 서비스의 무료 제공, 교내에 위치한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학생의 활용 빈도는 10~2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도움 추구에 있어 환경적 접근성보다 심리내적 요인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12]. 따라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된 심리내적 요인들을 다양하게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더 나아가 도움 추구하고 관련된 구체적 개입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 인력 및 보다 건강한 삶을 누리 고자 하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초기 연구 방향은 성별,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등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들에 주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후속 연구들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있어 심리내적 요인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주제가 되었다[15]. 다수의 선행 연구들[14, 16]에서 자기은폐, 애착유형, 우울, 자기낙인과 같은 심리내적 요인들이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ushner와 Sher는 도움추구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을 전문적 도움 추구에 대한 태도 및 실제적 도움 추구 행동 경향성과 연관지어 접근 요인과 회피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17] 이는 여러 연구에서 탐색된 심리내적 요인들이 전문적 도움추구를 예측하는 데 있어 분류의 기준이 되었다[15].

전문적 도움추구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심리 상담 분야에서 시작되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왔지만, 비교적 적은 수의 연구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18]. 또한 다수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관련 연구에서 접근-회피 요인은 중요한 연구 주제였으나[15], 일부 요인들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연관성에 있어 혼재된 결과들을 보여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수의 연구[8, 16]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도움 추구 태도간의 정적 연관성을 보여 주었으나, 일부 연구[19]에서는 두 변수간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과 위험기대에 있어서도 유용성기대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된 반면[8, 14, 20] 유용성 위험기대는 유용성기대보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미치는 효과가 더 작거나[8]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20]. 이에 본 연구는 발달 단계 상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에 비해 학계에서 비교적 많이 연구되지 않은 집단인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심리내적 요인들을 검증하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은 정신적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적 도움과 같은 개입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과 전문적 도움 추구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대학생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도움추구 행동을 탐색하는 연구[21,22]가 수행되고는 있으나 도움 추구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학계의 관심에 비하면 수적인 면에서 제한적이며 구체적으로 도움 추구

태도의 영향 요인을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 학계에서도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2], 그러나 선행 연구들은 주로 폭력 환경 노출, 폭력에 대한 태도, 개인심리적 특성, 성역할태도, 음주 등과 같은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주는 조절변인과 매개변인의 검증에 한정되어 있고[6] 데이트폭력과 전문적 도움 추구 태도의 관계를 검증하는 연구는 전무한 상황으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데이트폭력 관련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심리내적 요인인 데이트폭력 인식(폭력 정당화를 포함하는 연인 간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도움 추구 태도 관련 선행 연구에서 중요하게 논의된 접근-회피 요인 중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던 지각된 사회적 지지 및 상담에서의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과 위험기대 변인을 포함하였으며, 심리내적 변인 중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심리적 불편감 노출에 대한 정도와 도움 요청을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14]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심리내적 요인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관련한 다양한 심리내적 변인을 포함함으로써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이해를 보다 통합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대학생 데이트폭력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최초의 연구로서 연구 주제의 확장이라는 학문적 의의를 갖는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잠재적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긍정적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과 같은 실천적 개입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특성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둘째, 데이트폭력 인식(비합리적 신념), 심리적 불편감 노출,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위험기대, 도움 요청 장애요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데이트폭력 인식(비합리적 신념), 심리적 불편감 노출,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위험기대, 도움 요청 장애요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충남 천안시 소재 B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이며,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550부의 설문지를 B 대학교 내 연구자 3명이 운영하는 교과목의 수강 학생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회수되지 못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42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508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특성과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종교, 학년, 전공계열, 거주형태를 조사하였고,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특성은 이성교제 경험, 성 경험, 피임 교육 경험, 성폭력과 성희롱 교육 경험을 포함시켰다.

2.2.2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상담,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며[9], Fisher와 Turner[23]가 개발한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척도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Psychological Help Scale; ATSPPH)를 장미경[24]

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29문항, 4개의 하위척도(도움에 대한 필요성 인식,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한 내인성, 대인관계에서의 개방성, 전문가에 대한 신뢰)로 구성되었다.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태도가 더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장미경[24]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alpha = .82$,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835이었다.

2.2.3 데이트폭력 인식(비합리적 신념)

데이트폭력 인식은 데이트관계에 있는 연인이 상대방의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박진희[25]가 개발한 1문항과 임채영 등[26]이 개발한 3문항 총 4문항이며, 4점 likert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인식(비합리적 신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진희[2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75$, 임채영 등[26]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21$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784$ 이었다.

2.2.4 심리적 불편감 노출

심리적 불편감 노출은 자기노출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을 의미하며, Kahn과 Hessling[27]에 의해 개발된 심리적 불편감 노출척도(Distress Disclosure Index; DDI)를 신연희[28]가 번역하여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신의 사적인 불편감을 노출하는지 또는 은폐하는지의 경향성을 측정하며, 총 12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는 정보를 노출하는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연희[2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8$ 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09$ 로 나타났다.

2.2.5 지각된 사회적지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긍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Abbey 등[29]이 개발하고 유성은, 권정혜[30]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척도로 총 25문항,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성은, 권정혜[30]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76$, 본 연구의 Cronbach's $\alpha = .967$ 로 나타났다.

2.2.6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대한 유용성기대와 위험기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대한 유용성기대와 위협기대는 상담자에게 자신의 정서적인 것과 연관된 경험들을 노출하는 것에 대해 개인이 기대하는 결과이다[9], 유용성기대는 개인이 자기를 노출함으로써 얻는 보상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의미하고, 위협기대는 개인이 자기를 노출함으로써 얻는 위험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의미한다[14].

Vogel과 Wester[9]가 개발한 노출 기대 척도(Disclosure Expectations Scale; DES)를 신연희와 안현의[8]가 사용한 총 8문항, 2가지 하위 요인으로 유용성기대와 위협기대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유용성기대에는 어떤 문제에 대해 사적인 정보를 상담자에게 털어 놓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총 4문항이며, 위협기대는 상담자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총 4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노출에 따른 전문적 상담의 유용성이 높고, 자기노출에 따른 전문적 상담의 위험기대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연희와 안현의[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유용성기대 Cronbach = .81, 위협기대 Cronbach = .77이며, 본 연구에서는 유용성기대 Cronbach's α = .875, 위협기대 Cronbach's α = .825로 나타났다.

2.2.7 도움요청 장애요인

전문적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하는데 장애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Kuhl, Jarkon-Horlik과 Morrissey[31]가 개발한 청소년 도움요청 장애요인 척도(Barriers to Adolescents Seeking Help; BASH)를 강연미, 김희수[32]가 사용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는 낙인, 도움 대상에 대한 접근성, 비밀보장, 상담에 대한 괴리감, 소외감, 자기해결성 등 총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4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요청 장애요인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강연미, 김희수[3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 α = .819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 .909로 나타났다.

2.3 자료수집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영향 요인에 대해 자가보고서식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수집 기간은 2019년 12월 한달 동안

이며, B대학교 내 교수자인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목의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의 비밀보장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설문지와 함께 서면동의서를 발부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30분이며, 설문지 노출의 최소화를 위해 수업 후 대상자 스스로 작성하게 하고 연구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회수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이성교제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성 교제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데이트폭력 인식, 심리적 불편감 노출, 지각된 사회적 지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대한 유용성기대와 위협기대, 도움요청 장애요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차이는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3세 이상이 260명(51.2%), 성별은 여학생이 369명(72.6%), 종교가 있는 경우가 216명(59.2%), 학년은 3-4학년이 352명(69.3%), 학부계열은 보건·공과계열이 292명(57.5%), 거주형태는 기숙사나 자취생활이 308명(60.6%)으로 많이 나타났다.

데이트폭력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특성은 성 경험이 없는 경우가 337명(66.3%),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412명(81.1%), 피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439명(86.4%), 성폭력·성희롱 교육 경험은 있는 경우가 461명(90.7%)으로 많이 나타났다.

Table 1. Differences in Attitude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N=508)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Mean±SD	t	p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r)	< 23	248(48.8)	2.73±.34	-2.057	.040
		≥23	260(51.2)	2.80±.35		
	Sex	Male	139(27.4)	2.73±.32	-1.120	.263
		Female	369(72.6)	2.74±.35		
	Religion	Yes	318(62.6)	2.82±.34	4.569	.000
		No	190(37.4)	2.67±.33		
Grade	1-2 grade	156(30.7)	2.76±.33	-.304	.761	
	3-4 grade	352(69.3)	2.77±.35			
Division	Health/engineering	292(57.5)	2.70±.34	-4.570	.000	
	Humanities/art & physical education	216(42.5)	2.85±.34			
Living	Home	292(57.5)	2.74±.35	-1.093	.275	
	Dormitory/ trace	308(60.6)	2.77±.34			
variables Related to dating Violence	Sexual experience	Yes	171(33.7)	2.73±.36	1.277	.202
		No	337(66.3)	2.78±.34		
	heterosexual dating experience	Yes	412(81.1)	2.77±.35	-.117	.907
		No	96(18.9)	2.76±.32		
Contraceptive education experience	Yes	439(86.4)	2.72±.35	1.286	.199	
	No	69(13.6)	2.81±.32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buse education experience	Yes	461(90.7)	2.76±.34	-.100	.920	
	No	47(9.3)	2.76±.36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차이는 나이와 종교 유무, 학부계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차이는 나이가 23세 이상인 경우가 23세 이하인 경우 보다 높았고($t = -2.057, p = .040$), 종교 유무는 종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높았고($t = 4.569, p = .000$), 학부계열은 인문-예체 계열이 보건-공과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t = -4.570, p = .000$).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차이는 성별, 학년, 주거형태, 성경험, 이성교제, 피임교육받은 경험, 성폭력교육 받은 경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3.2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정도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데이트폭력 인식, 심리적 불편감 노출,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 대한 유용성과 위험기대, 도움요청 장애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종속변수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평균은 2.76점(±.46, 4점 만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독립변수 중 데이트폭력 인식의 평균은 1.31점(±.48, 4점 만점), 상담에 대한 위험기대의 평균은 2.22점(±.89, 5점 만점), 도움요청 장애의 평균은 2.21점(±.34, 4점 만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심리적 불편감 노출 평균은 3.41점(±.84, 5점 만점), 지각된 사회적지지의 평균은 4.02점(±.57, 5점 만점), 상

담에 대한 유용성의 평균은 3.38점(±.93, 5점 만점)으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2. Factors influencing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with dating violence (N=508)

Factors	Range	M±SD
dating violence perception	1-4	1.31±.48
self-disclosure,	1-5	3.41±.84
perceived social support,	1-5	4.02±.57
utility on self-disclosure	1-5	3.38±.93
risk on self-disclosure	1-5	2.22±.89
barriers to seeking help	1-4	2.21±.34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1-4	2.76±.36

3.3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영향 요인간의 상관 관계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데이트폭력 인식,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와 위험기대, 도움요청 장애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심리적 불편감 노출($r = .325, p < .01$), 지각된 사회적 지지($r = .239, p < .01$),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r = .500, p < .01$)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데이트폭력인식($r = -.228, p < .01$),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위험기대($r = -.448, p < .01$), 도움 요청 장애요인

($r=-.456, p<.01$)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심리적 불편감 노출이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인식이 낮을수록,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위험기대가 낮을수록, 도움 요청 장애요인이 낮을수록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영향 요인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데이트폭력 인식(비합리적 신념), 심리적 불편감 노출,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와 위험기대, 도움 요청 장애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출된 회귀모형의 $R^2 = .461$ 이

고 통계상 유의하게 나타났다($F=56.496, p=.000$). Durbin-Watson값은 1.814로 독립변수들 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데이트폭력 인식($\beta=-.084, p<.01$), 지각된 사회적지지($\beta=-.047, p<.05$), 상담에 대한 유용성($\beta=.393, p<.001$), 상담에 대한 위험기대($\beta=-.218, p<.001$), 도움요청 장애($\beta=-.209-7, p<.001$)로 나타났다. 즉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데이트폭력 인식이 낮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상담에 대한 위험기대가 낮을수록, 도움 요청 장애가 적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상담에 대한 유용성이 높을수록, 심리적 불편감 노출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 관련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대한 데이트폭력 인식,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 대한 유용성과 위험기대, 도움요청 장애의 설명력은 46.1%로 나타났다($F=56.496, p <.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Influencing Factors in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s

Variables	violence perception	self-disclosure	perceived social support	utility on self-disclosure	risk on self-disclosure	barriers to seeking help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violence perception	1						
self-disclosure	-.126**	1					
perceived social support	-.177**	.414**	1				
utility on self-disclosure	.008	.291**	.224**	1			
risk on self-disclosure	.195**	-.226**	-.254**	-.231**	1		
barriers to seeking help	.193**	-.255**	-.246**	-.303**	.499**	1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s	-.228**	.325**	.239**	.500**	-.448**	-.456**	1

* $p<.05$, ** $p<.01$

Table 4. Factors affecting the professional help seeking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p	Tol	VIF	Ajd R ²	F	ρ
(Constant)	3.290	.215		15.278	.000					
violence perception	-.076	.034	-.084	-2.237	.022	.800	1.250			
self-disclosure	.034	.021	.064	1.606	.032	.747	1.338			
perceived social support	-.037	.031	-.047	-1.199	.031	.672	1.489	.461	56.496	.000
utility on self-disclosure	.191	.018	.393	10.364	.000	.287	1.240			
risk on self-disclosure	-.110	.021	-.218	-5.311	.000	.697	1.434			
barriers to seeking help	-.274	.055	-.209	-4.984	.000	.663	1.509			

4. 논의 및 결론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자율성 획득, 진로의 결정 및 준비, 이성 간의 친밀한 관계형성 등 다양한 발달 과제를 안고 있는 시기이다. 이러한 발달 과제는 개인에 따라 심각한 스트레스를 야기할 수 있고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우울, 불안 등의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상담 및 심리치료, 정신과 치료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활용은 효율적이고 적절한 문제해결, 적응력 향상, 또한 개인의 성숙에 매우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경험 사례의 만연성[3, 4]과 더불어 이에 대한 전문적 도움 서비스의 소극적 활용이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인식과 전문적 도움추구와의 관계 및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심리적 불편감 노출, 지각된 사회적지지, 상담에서의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 및 위험기대, 도움요청 장애요인-을 통합적으로 탐색하고 요인들 간의 상대적인 설명력의 크기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있어서는 연령, 종교의 유무, 전공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나이가 더 많을수록(23세 이상) 전문적 도움추구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연숙, 이은희, 이은주[33]의 연구나 조현주 외[34]의 연구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드러난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차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존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또한 다양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 높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이것은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고학년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문적 도움추구에 소극적인 저학년을 대상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종교가 있는 경우, 전문적 도움추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종교를 일종의 사회망으로 볼 때에 종교가 있는 대학생의 경우 종교 기관에 대한 신뢰 및 종교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비합리적 인식은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부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트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고 정당화하거나 부적절한 개념을 수용하는 대학생일수록 전문적인 도움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폭력 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관계를 살펴본 최연숙, 이은희, 이은주[33]에서도 폭력인식이 높을수록 적극적 대처방식(문제중심 대처 및 사회적 지지추구)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데이트폭력의 예방 및 대처 관련 개입에 있어서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신화를 타파하고 적절한 인식-즉 이것이 당사자 간의 사적인 문제의 영역을 넘어선 일반적 사회적 범죄와 같은 엄연한 범죄라는-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셋째로, 심리적 불편감 노출(자기노출)과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관계는 심리적 불편감 노출에 개방적일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심리적 불편감 노출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의 도움추구행동과 자기개방성 및 자기은폐와의 관계를 탐색한 박정연과 박은아[35]의 연구나 성인애착과 도움추구의 의도에서 자기노출, 자기은폐,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임수진과 노안영[36]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임수진, 노안영[36]의 연구에서 자기노출과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 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고 자기노출이 심리적 불편감을 매개로 도움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감안할 때, 심리적 불편감 노출에 대한 개방성과 전문적 도움추구의 관계는 추후 더 탐색이 필요한 주제로 보인다.

넷째로,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며, 사회적 지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추구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와의 관계를 탐색한 선행 연

구들은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밝히고 있다.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간의 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는 연구가 있는 반면[8, 16, 24] 또 다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의 부적 관계를 보고하였다[19].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연미와 김희수[3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자원(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대상)이 많을수록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가 높았지만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있어서는 도와줄 지지자원이 없는 경우에 더 높은 도움추구 의도를 보이는 등의 혼재된 결과를 보고하였다. 또 한편으로 성인애착과 도움추구 의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유영란과 이지연[37]의 연구나 임수진과 노안영[36]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도움추구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심리적 불편감에 영향을 주고, 심리적 불편감이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심리적 불편감을 더 크게 경험하고 이것이 전문적 도움을 추구하도록 하는 촉매가 된다는 것이다[8, 37]. 본 연구의 결과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요인으로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경우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전문적 도움 서비스보다는 가용한 비전문적인 사회적지지(부모, 친구 등)를 더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전문적 도움 서비스(교내 상담센터 등)의 이용 사실 노출과 그로 인한 사회적 낙인 등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전문적 도움 서비스를 기피하는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다[38].

다섯째로, 상담에서 자기노출에 따른 유용성기대와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는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용성기대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른 변인과 비교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분야의 선행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하며[8, 14, 20], 상담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전문적 도움 서비스를 찾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으로, 상담에 대한 위협기대 및 도움요청 장애요인은 전문적 도움추구에 방해가 되는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났으며[8, 39] 유용성기대 다음으로(유용성기대>위험기대>도움요청 장애요인) 큰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의 전문적 도움 서비스 활용 향상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 전문적 도움 서비스의 긍정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여기에는 전문적 도움 서비스가 대학생이 당면한 문제해결 및 기능의 향상, 더 나아가 삶의 질의 개선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전문적 도움 서비스의 고유한 이득이나 장단기 효과 및 전문적 도움 서비스를 받지 않고 문제를 방치했을 경우에 예측되는 부정적 결과 등이 포함될 수 있겠다. 또한 심리적 어려움 및 문제해결에 있어서 비전문적 도움의 한계와 비전문적 도움과 전문적 도움 서비스의 차이점을 부각시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이 시기적절하고 적합한 전문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문적 도움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신화나 부정적인 기대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이다. 특히, 대학생이 자신의 은밀한 사적인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부분을 공감적으로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비밀보장과 같은 전문적 도움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관련 측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또한 전문적 도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정상'이기 때문이거나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해서라는 부적절한 사고를 해소하고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용기와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유연한 사고 능력의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로는 첫째, 기존의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발생 요인 및 결과에 대한 탐색에 주로 치중되어 왔다[40]. 선행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가 보다 다양한 영역과 주제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어필하며 특히, 데이트폭력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 바 있다[33].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관련 연구 주제의 확장에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인식의 변인만을 살펴보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의 대처와 관련하여 보다 다양한 변인을 탐색해 볼 것을 제안한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 주요 변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그 설명력의 크기(46%)를 밝힌 것은 본 연구의 또 하나의 중

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문상담에 대한 유용성기대, 위험기대, 도움요청 장애요인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월등하게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에 큰 설명력을 가진 것을 밝혀냄으로써 전문적 도움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홍보 및 교육적 개입의 우선순위 및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대상이 충청남도 천안시의 한 대학의 대학생에 국한되었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대학생 일반에 적용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만을 다루었는데 추후 연구에서는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 연관성이 높은 전문적 도움추구 의도도 포함시켜 전문적 도움추구에 관한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해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전문적 도움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적 도움 서비스의 이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 변인을 탐색하여 전문적 도움추구 태도 및 의도와 실제 전문적 도움추구 행동과의 간극을 탐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사용하였기에 전문적 도움추구 관련한 다양한 동기를 탐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질적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제안하는 바이다.

REFERENCES

- [1] J. R. Lee & K. S. Chong. (2020).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domestic dating violence. *Correction Forum*, 14(1), 211-241. DOI : 10.12811/kshsm.2017.11.2.129
- [2] J. K. Hyeon. (2019). *Meta analysis of the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reported by unmarried men and women with experience of dating*. Master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 [3] H. N. Park & S. M. Jang. (2012).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dating violence of college students - Focused on drinking problems of victims and perpetrators. *Journal of Future Social Work Research*, 3(1), 33-52.
- [4] W. Y. Cho & K. H. Kim. (2015). The effects of childhood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on dating violence moderating effects of adult attachment styl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49, 71-96. DOI : 10.16975/kjfs.2015..49.003
- [5] R. M. Bossarte, T. R. Simon & H. Swahn. (2008). Clustering of adolescents dating violence, peer violence, and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3(6), 815-833.
- [6] J. N. Kim. (2018).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and related variables*. Doctoral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ju.
- [7] S. R. Shin. (2018). A case study on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ating violence victims in college. *Korean Criminal Psychology Review*, 14(2), 47-62.
- [8] Y. H. Shin & H. N. Ahn. (2005). The relative importance of approach factors and avoiding factors in predicting professional help seeking behavior.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1), 177-195.
- [9] D. L. Vogel, S. R. Wester & L. M. Larson. (2007). Psychological factors that inhibit seeking help.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5(4), 410-422.
- [10] M. C. Angermeyer, S. Van Der Auwera, M. G. Carta & G. Schomerus. (2017). Public attitudes towards psychiatry and psychiatric treatment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population surveys. *World Psychiatry*, 16(1), 50-61.
- [11] Y. J. Kim, J. M. Kim & A. L. Kim.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depressive vulnerability,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professional help-seeking attitude. *Korea Youth Research*, 7, 55-82. DOI : 10.21509/KJYS.2017.07.24.7.55
- [12] Y. J. Im, Y. S. Han, J. M. Cheon & M. H. Son. (2014). 2014 Survey of students. *Journal of Student Counseling*, 22, 69-162.
- [13] K. A. Park & H. J. Cho. (2007). Korean college students' thoughts about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5(1), 3-15. DOI : 10.35151/kyci.2007.15.1.001
- [14] M. J. Ko, Y. O. Lee, S. M. Lee & B. Y. Choi. (2019). The mediating effects of anticipated risk and utility on self-disclosur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attachment and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11(2), 265-281.
- [15] W. R. Lee. (2016). *Social-network orientation, psychological distress and readiness for*

- counseling on attitudes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among student, Master thesis. Kyungki University, Suwon.
- [16] Y. S. Lee. (2010). *The effects of self-stigma, self-concealment and social network orientation on attitude towards seeking professional help: in counseling and mothers in non-counseling groups*. Master thesis. Sookmyong Women's University, Seoul.
- [17] M. G. Kushner & K. J. Sher. (1991). The Relation of treatment fearfulness and psychological service utilization: An overview.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22(3), 196-203.
- [18] H. C. Kim. (2018). Mediating effects of stigm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distress and help-seeking attitude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South Korea. *Mental Health and Social Work*, 46(1), 5-33.
DOI : 10.24301/MHSW.2018.03.46.1.5
- [19] H. J. Song. (2000). Analyses of predictors of attitudes toward school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37-51.
- [20] D. L. Vogel, S. R. Wester, M. Wei & G. A. Boysen. (2005). The role of outcome expectations and attitudes on decisions to seek professional help.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459-470.
- [21] H. K. Cho & L. Huang. (2017). Aspects of help seeking among college victims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32(4), 409-417. 35(23/24), 5311-5335.
DOI : 10.1007/s10896-016-9813-3
- [22] A. Victoria, P. R. Kathleen & H. Denise. (2020). An analysis of help-seeking patterns among college student victims of sexual assault, dating violence, and stalk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5(23/24), 5311-5335.
DOI : 10.1177/0886260517721169
- [23] E. .H. Fischer, & J. L. Turner, (1970). Orientations to seeking professional help: development and research utility of an attitude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5, 79-90.
DOI : 10.1037/h0029636
- [24] M. K. Jang. (2014). Mediating effect of type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help-seeking attitudes and professional help-seeking behavior among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9), 1-24.
- [25] J. H. Kwak. (2001). A Study of viewer's violence perception and the context dimensions on TV violenc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5(2), 7-41.
- [26] C. Y. Lim, S. Y. Chung & M. S. Lee. (2010). The effects of violence perception on dating viol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5(12), 147-179.
- [27] J. H. Kahn & R. M. Hessling. (2001). Measuring the tendency to conceal versus disclose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0, 41-65.
DOI : 10.1521/jsocp.20.1.41.22254
- [28] Y. H. Shin. (2004). *The relative importance of approach factors and avoidance factors in predicting professional help seeking behavior*. Department of Psychology. Master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 [29] A. Abbey, D. J. Abramis & R. D. Caplan.(1985). Effects of different sources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conflict on emotional well-being.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6(2), 111-112.
DOI : 10.1207/s15324834basop0602_2
- [30] S. E. You & J. H. Kwon. (1997). The effects of perfectionism ,social support ,stress , and coping style on depression in the middle-aged woma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6(2), 67-84.
- [31] J. Kuhl, L. Jarkon-Horlick & R. F. Morrissey. (1997). Measuring barriers to help-seeking behavior in adolesc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6(6), 637-650.
- [32] Y. M. Kang & H. S. Kim. (2016). Help-seeking behaviors among Korean adolescents: A focus on barriers and crisis experienc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8(2), 237-252.
- [33] Y. S. Choi, E. H. Lee & E. J. Lee (2017). Self-esteem, gender-stereotype activation, violence perception, and date violence coping type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Nursing Science*, 21(1), 23-33
- [34] H. J. Cho, H. W. Yim, S. J. Jo & M. H. Bang. (2008). Gender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and reluctance to seek help.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13(3), 283-297.
- [35] J. E. Park & E. A. Park. (2016). Relation between the help seeking behaviors, self-disclosure and self-concealment in female college women.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28(1), 47-58.
- [36] S. J. Lim & A. Y. Noh. (2009). The Effect of Adult

Attachment on The Help Seeking Intention.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0(3), 1383-1396

- [37] Y. R. Yoo & J. Y. Lee. (2006). Adult attachment and help-seeking intention: The mediating roles of self concealment,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8(2), 441-460.
- [38] M. J. Lee & E. J. Son. (2007). Perceived stigma and the intention of seeking professional help: Mediating roles of the attitude toward seeking professional help.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4), 949-966.
- [39] D. L. Vogel & S. R. Wester. (2003). To seek help or not to seek help: The risk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3), 351-361.
- [40] J. E. Baeck. (2018). A review of researches on violence in the romantic dating relationship. *Journal of Counseling and Research*, 1(1), 25-42.

김 영 은(Youngun Kim)

[정회원]



- 1999년 12월 : 美트리니티대학교 상담심리 석사
- 2006년 8월 : 美휘튼대학교 임상심리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기독교상담학전공 교수

- 관심분야 :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대상관계 심리치료, 상담기술훈련, 청소년상담
- E-Mail : youngeunk@bu.ac.kr

윤 미 선(Mi-Sun Yoon)

[정회원]



- 2002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 석사
- 2005년 2월 : 중앙대학교 간호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모성·여성간호, Simulation
- E-Mail : ymsrose@bu.ac.kr

이 현 정(Hyun-Jung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美일리노이 주립대 사회사업학 석사
- 2007년 12월 : 美일리노이 주립대 사회사업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여성복지
- E-Mail : hjee2003@bu.ac.kr